

## 성인여성의 요실금과 삶의 질

김희진, 이해정, 공경애, 서희선, 심경원, 이상화, 이홍수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**연구배경:** 요실금은 적절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. 최근 여러 질병에서 삶의 질 연구가 확대되고 요실금에 따른 사회적, 정신적 영향이 문제가 됨에 따라 요실금에 대한 삶의 질 연구도 증가하였으나, 국내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.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:** 2002년 4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일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와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요실금의 양상을 묻는 설문지와 The Medical Outcomes Study (MOS) 36-Item Short-Form Health Survey (SF-36)를 시행하였고, Excel 2000의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.

**결과:** 평균 연령은 42.5세였고, 최근 1년 내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현증 요실금은 48명, 한 번도 요실금을 경험해보지 않은 정상군은 65명이었다. SF-36 점수의 전체 평균은 1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76.5점이었다. 현증 요실금군에서의 평균은 69.0점이었고, 정상군에서의 평균은 81.5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( $p < 0.001$ ). 요실금의 유병기간은 평균 4.0년이었고, 의사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는 10.4%, 아무에게도 의논한 적이 없는 경우가 64.6%였다. 소변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 20.8%, 불만족스럽다 54.2%, 절망적이다 15.6%였다.

**결론:** 환자들은 정상군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,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므로 일차진료 의사들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라도 적극적인 병력 청취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.

**중심단어:** 요실금, 삶의 질